

눈 밑 다크서클



홍종욱 원장의
성영이야기

눈 밑이 푸르스름해 보이는 눈 밑 다크서클은 상대방에게 지치고 피곤한 인상을 풍기기 쉽다.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이거나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 외모 콤플렉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크서클은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다크서클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색소침착, 건강이상, 노화 등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뉜다. 이때 피부탄력이 좋고,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눈밑지방재배치술'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년층과 같이 노화로 인해 피부탄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하안검성형술'을 시행하는 적절하다.

다크서클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눈밑지방재배치술'은 한 쪽 또는 양쪽으로 몰려있는 지방을 골고루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눈 밑의 볼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영이 진 부분은 자연스럽게 매워주고, 느슨해진 지방막을 조여줘 환하고 탄력 있는 눈매로 연출이 가능하다.

시술에 앞서 안검외반증이나 눈 밑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을 피하려면 눈 안쪽 결막을 통해 지방을 골고루 재배치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노화로 인

해 피부가 심하게 늘어졌다면 '하안검수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노안성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안검성형술은 볼록 튀어나온 지방과 처진 피부를 동시에 제거해줌으로써 한 층 젊고 탄력 있는 눈매로 연출 가능하다. 이때 눈 밑이 심하게 꺼졌거나 잔주름이 심한 편이라면 자가지방이식술을 병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하안검성형술을 시행할 때 처진 피부를 과도하게 제거하면 피멍이 심하게 들고 피부 손실이 많아 아래 눈꺼풀이 밖으로 튀어나는 '안검외반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한번에 많은 양의 피부와 지방을 제거하는 것은 금물이며, 가급적 1회 이상 시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낙인과 낙원 사이



기지 수첩
채 신 화
(파이낸스&부동산부)

'낙인(烙印)'. 씻기 어려운 불명예를 말한다.

주택 시장에도 낙인이 여럿 존재한다. 할인 분양, 하자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이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낙인은 미분양이 아닐까. 서울과 지방 간 주택 가격·거래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 꺼진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미분양 낙인'이 짙은 지역도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에 육박했다. 숫자로 보면 위기감이 덜하다. 그러나 지역별 적체를 따져보면 심각하다. 전국 미분양 주택 5만9836가구 중 5만37가구(83.6%)가 지방에서 나왔다. 준공 후 5년이 된 악성 미분양도 지방

에서 월등히 많다. 서울은 47가구, 세종은 제로(0)다. 반면 충남에선 2863가구, 경북 1615가구, 경남 1599가구, 충북 130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집을 살 때는 보유 가치 또는 미래 가치를 따진다. 향후 집값이 오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다. 그리고 지방에선 좀처럼 별이 안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는 이가 없어도 공급은 과잉이고 재건축 규제, 보유세 도입, 금리 인상 등의 악재만 잇따라 한동안 이런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국지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분양이 증가하면 일대의 집값이 우수수 떨어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경우 '미분양 지역'에 대한 낙인이 더 깊게 새겨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인 8·2 대책에서도 이를 우려해 국지적 완화 대책이 빠

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그 사이 지방에선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서울에선 '로또 청약' 등을 기대하며 앉아서 돈을 번다. 서울과 수도권만 낙원인 셈이다.

지난 2009년이 떠오른다. 당시 미분양 가구는 17만에 육박해 주택 시장의 경고등을 켜다. 정부는 2·12 대책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 등으로 매매를 부추겼고, 빈집털이(미분양 가구 분양)에 성공했다. 그러나 3~4년 만에 미분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엔 정부가 이전과 비슷한 내용의 9·10 대책을 내놨다. 효과는 미미했다. 2011년 12월 6만9807가구에서 점차 줄다가 2012년 9월엔 오히려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일시적인 유인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셈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낙인과 낙원 사이를 좁혀나가야 할 때다.

/csh9101@metrosoul.co.kr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정운찬 신임 이사장 취임

(전 총리)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정운찬 전 총리(사진)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정운찬 신임 이사장은 47년 생으로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컬럼비아대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하다가 1978년 말 귀국해 서울대 강단에 섰다. 지난 2002년에는 제23대 서울대 총장에 뽑혀 임기 4년을 채웠다. 이후 제40대 국무총리로 취임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리직을 역임했다. 현재 제22대 KBO 총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직 및 동경대학교 총장 자문위원직을 수행 중이다.

정운찬 이사장은 "오랫동안 교육자로서 학생과 청소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서 진행되는 장학 및 사회복지 사업이 더욱 진정성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민호 기자 kmh@



관광공, '웰컴 대학로' 홍보대사에 뮤지컬 배우 카이 임명

뮤지컬 배우 겸 팝페라 가수 '카이'(본명 정기열)이 '2018 대학로 공연관광 페스티벌(웰컴대학로)'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한국관광공사는 3일 오전 대학로 JTN아트홀에서 카이를 웰컴대학로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여간 대학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광공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개관

전 세계 500번째 노보텔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가 문을 열었다. 호텔, 레지던스 복합형 노보텔은 전 세계 최초다.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자사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과 레지던스가 공존하는 강점을 활용해 비즈니스, 의료관광, 가족 단위 고객 등 다양한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조인식 총지배인(왼쪽)과 아코르앰배서더코리아 빈센트 르레이(Vincent Lelay) 부사장.

/노보텔 앰배서더

인사

◆한국수력원자력 (1(울)직급 승격) ◇ 본사 △ 신재생사업처 재생에너지사업팀장 최환수 ◇ 새울원자력본부 △ 제1발전소 기술실 정비기술팀장 홍승구 △ 제1건설소장 이형범 ◇ 무주양수발전소 소장 이승재 ◇ 중앙연구원 △ 연구전략실 연구정책팀장 김요한 △ 신형원전연구소 설계기술그룹장 이재곤 △ 설비기술연구소 비파괴기술그룹장 김용식 △ 설비기술연구소 비파괴기술그룹 책임전문원 강용석 △ 계통안전연구소 노심해석그룹 책임연구원 신호철 △ 방사선환경연구소 화학환경그룹 책임전문원 성기방 △ 플랜트건설기술연구소 부지구조그룹장 이숙경 (1(울)직급 승격 및 보직이동) ◇ 본사 △ 조달처 동반성장팀장 정영태 △ 엔지니어링처 설계엔지니어링팀장 김선복 △ 건설처 신고리3,4PM 이영환 △ 건설처 신한울1,2PM 최상성 ◇ 고리원자력본부 △ 교육훈련센터장 박원서 △ 제1발전소 기술실장 조봉호 △ 제3발전소 기술실장 광택현 ◇ 한빛원자력본부 △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장 김태곤 △ 제1발전소 운영실장 윤용배 △ 제1발전소

기술실장 서영주 △ 제3발전소 운영실장 김성명 ◇ 월성원자력본부 △ 제1발전소 운영실장 김재원 △ 제2발전소 기술실장 신해철 △ 제3발전소 운영실장 김양환 ◇ 한울원자력본부 △ 제2발전소 운영실장 이대환 △ 제3발전소 기술실장 신우식 △ 신한울제1발전소 운영기술실장 고효제 △ 한울원자력본부 제3발전소 방사선안전팀장 이상구 ◇ 새울원자력본부 △ 제1건설소 기전실장 조석진 △ 제1건설소 토건실장 방창준 △ 제2건설소 기전실장 노희상 △ 제2건설소 토건실장 안성식 ◇ 한강수력본부 청평수력발전소장 박승철 ◇ 중앙연구원 △ 연구지원실장 배주섭 △ 수석(울)연구원 이성호 ◇ 아바다비지사 바라카제2발전소 시운전실장 김한성 <보직이동> ◇ 본사 △ 노무처 노사업무팀장 남영규 △ 건설처 신고리5,6PM 박시용 △ 건설처 신규원전사업정리실장 최규은 ◇ 고리원자력본부 △ 엔지니어링센터장 모상영 △ 제1발전소 1호기안전관리실장 이상욱 △ 제1발전소 운영실장 서순철 △ 제2발전소 운영실장 김민철 △ 제2발전소 기술실장 최현규 ◇ 한빛원자력본부 △ 엔지니어링센터장 오홍재 △ 교육훈련센터장 배성욱 △ 제2발전소 운영실장 박복열 △ 제2발전소 설비개선실장 고훈진 △ 제3발전소 설비개선실장 이희환 ◇ 월성원자력본부 △ 교육훈련센터장 서연식 △ 대외협력처 경영지원실장 이형승 △ 제1발전소 기술실장 이강용 △ 제2발전소 운영실장 전준경 △ 제3발전소 기술실장 고병길 ◇ 한울원자력본부 △ 제1발전소 운영실장 김재현 △ 제2발전소 기술실장 강소원 △ 신한울제1발전소 시운전실장 박범수 △ 신한울제1건설소 기전실장 조법장 △ 신한울제1건설소 토건실장 조태룡 △ 신한울3,4건설정리실장 조명현 △ 천치원전건설정리실장 최홍관 ◇ 한강수력본부 △ 교육훈련센터장 박석현 △ 수력운영실장 김창균 △ 의암수력발

전소장 유준식 ◇ 중앙연구원 △ 엔지니어링지원단장 정희승 ◇ 업무지원처 △ 사옥건설팀장 윤재준 ◇ 인재개발원 △ 리더십교육센터장 전재규 △ 글로벌교육센터장 이광석 ◆우리은행 (승진) ◇ 지점장 △ 서초로 서상근 △ 숭실대학교 최연수 △ 회기동 정의학 △ 교하 김대일 △ 공주 김두한 △ 대전 이무진 △ 제천 김윤식 △ 범천동 이순철 △ 울산북 한시용 △ 신용보증기금 영수진 △ 침산동 신창섭 △ 안동 박춘규 △ 왜관공단 정영호 △ 광주금호 강용원 △ 신창 김성주 △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 본점1 박성현 △ 삼성 박용철 △ 여의도 조조연 △ 미래1 이상호 △ 미래1 권오병 △ 미래1 송승인 △ 미래2 최홍준 △ 미래2 박태현 △ 미래2 김호순 △ 금융센터 지점장 △ 공덕동효성 이상배 △ 동여의도 차재남 △ 수송동대림 권오준 △ 포스코 박정훈 △ 한화 김의식 △ CJ 주환성 △ 코오롱타워 권선출 △ 가락중앙 이상표 △ 가산IT 정환진 △ 무역센터 류창원 △ 법조타운 박찬중 △ 서울디지털 정광호 △ 수서역 홍승기 △ 신사동 이상호 △ 청담동 박상천 △ 화곡동 최세용 △ 공항서 금석 △ 동수원 한진원 △ 부천 황한수 △ 안양중앙 양동혁 △ 모라동 김병훈 △ 울산중앙 박호영 △ 창원공단 이정석 △ 영일본부 PB지점장 △ 강북 조현숙 △ 영등포 김영미 △ 중부 박혜선 △ 인천 김인영 △ 경기북부 오정은 ◇ 부장대우 △ 인사부 이명호 △ 직원만족센터 김성길 △ 중기업심사부 김용찬 △ 중기업심사부 우정식 △ 전략기획부 정정락 △ 미래전략부 송양진 △ 감사실 김형석 △ 감사실 김창운 △ 감사실 강태훈 △ 동경 황병선 △ 베트남우리은행 윤홍경 △ 인재개발부 조한용 △ 인재개발부 김현관 △ 인재개발부 한철진 △ 인재개발부 한영국 △ 인재개발부 김정석 △ 인재개발부 박신용 △ 인재개발부 김도겸 △ 인재개발부 신진호 △ 인재개발부 김혜

숙 △ 인재개발부 이승환 △ 인재개발부 허희숙 △ 인재개발부 박제상 △ 인재개발부 전수일 △ 인재개발부 박경환 △ 인재개발부 김광년 △ 인재개발부 이동희 △ 인재개발부 김충훈 △ 인재개발부 정말순 △ 인재개발부 박병덕 △ 인재개발부 허일성 △ 인재개발부 서승석 △ 인재개발부 김민정 △ 인재개발부 송금수 △ 인재개발부 이상윤 △ 인재개발부 최규창 △ 인재개발부 김중윤 △ 인재개발부 이근섭 △ 인재개발부 윤상규 △ 지점장대우 △ 강동구청 장길산 △ 종로4가금융센터 이정노 △ 학동 현창홍 △ 덕계 흥순진 △ 수내역 유병오 △ 수원금융센터 이항재 △ 하단동 김중용 △ 여신업무센터 강호원 △ 수신업무센터 김자경 △ 기업금융부 장소식 ◆대신금융그룹 (대신증권) ◇ 부서장 신규선임 △ 램사업부 윤석영 ◇ 3급 과장 승진 △ 재무자금부 박승관 △ 스마트Biz추진부 김태진 △ IT개발부 김광원 △ 램사업부 윤준성 △ 연금사업센터 김재현 △ 리스크관리부 홍석찬 ◇ 3급 차장 승진 △ 이촌동지점 서혜진 △ 강남대로센터 현성훈 △ 반포WM센터 구호준 △ 부산센터 김경미 △ 동대구지점 송수경 △ 전주지점 오수현 ◇ 지점장 정보 △ 전주지점 김영실 △ 제주지점 김두형(대신저축은행) ◇ 3급 팀장 승진 △ 종합금융부 박진영 △ 역삼지점 최신의(대신자산운용) ◇ 본부장 신규선임 △ 마케팅지원본부 이종길 △ 퀀트운용본부 조윤호 ◆KT자산운용 ◇ 신규선임 △ 홀세일·리테일 마케팅본부장(상무) 최성국 ◆동양생명 ◇ 임원 선임 △ FC영업본부장(이사대우) 정광출 ◇ 팀장 승진 △ FC영업팀장 이성영 △ IT운영팀장 황진우 ◇ 사업부장 정보 △ 부산경남사업부장 박판용 △ POM사업부장 송호근 ◇ 팀장 정보 △ 다이렉트영업팀장 황대영 ◆예술의전당 ◇ 본부장 △ 경영본부장 태승진

△ 공연예술본부장 전해웅 △ 문화예술본부장 박민정 △ 운영본부장 이은관 △ 실장 △ 감사실장 김영곤 ◇ 부장 △ 기획전략부장 윤동진 △ 인사관리부장 김세연 △ 경영지원부장 이원호 △ 홍보부장 송성완 △ 사업개발부장 고영근 △ 공연기획부장 박상훈 △ 공연장운영부장 최석중 △ 무대운영부장 이용욱 △ 미술부장 조성문 △ 서예부장 채승기 △ 교육사업부장 황복희 △ 문화영상사업부장 김미희 △ 시설안전부장 정현근 △ 고객지원부장 박치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획조정본부장 조원서 △ 경영지원본부장 김준섭 △ 감사부장 전창철 △ 인증산업본부장 김진수 △ 디지털산업본부장 장태현 △ 시스템융합본부장 서상민 ◆OBS △ 경영국 국장(직무대행) 신성호 △ "정책기획팀 팀장 이동권 △ " 경영지원팀 팀장 조경환 △ 보도국 뉴스제작팀 팀장 이재상 △ " 정치외교팀 팀장 이수강 △ " 경제산업팀 팀장 양태환 △ " 사회팀 팀장 권현 △ " 월드뉴스팀 팀장 정철호 △ 기술국 기술기획팀 팀장 김태우

부음

▲서이븐 씨 별세, 손종근(MBC경남 영상취재부 부장)씨 모친상 = 2일, 진주중앙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9시, (055)745-8000 ▲강금선씨 별세, 박진영(현대·기아자동차 홍보실 홍보지원팀장)·진우(개인사업)씨 모친상 = 3일 오전 1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6시 인천 가족공원, (02)3779-1526 ▲이재만씨 별세, 노형식(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범식·홍씨씨 모친상 = 3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7시, (02)2227-50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 9826
독자센터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84호